

# 가을철 차량 관리 요령



**가을**은 야유회나 단풍 놀이 등 관광하기에 알맞은 기후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이 많아 차량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온이 서서히 하강하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고, 안개 현상도 빈발해진다. 자동차의 금속 부분이 수축되어 시동도 여름철처럼 시원하게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계절이 짧아 금방 겨울이 닥치게 되므로 겨울 채비도 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가을철 시의 주행 중 겪을 수 있는 차량의 트러블에 대처하는 요령을 소개한다.

● **주행중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을 때**  
기어를 저단으로 바꾸어 엔진

브레이크를 강하게 작동시켜 주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감속시킨 후 핸드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할 경우**  
예비용이 있다면 즉시 보충하면 되나, 없다면 위스키나 물 또는 소주로 보충하여 응급 조치하고 정비 공장으로 간다. 스폰지 현상 즉, 브레이크 페달이 많이 움직이면 오일 부족 또는 유압 계통에 공기가 유입된 것이다.

● **운행 도중 엔진의 힘이 떨어졌다면**  
엔진이 과열되었을 때는 냉각수의 상태나 팬 벨트를 조정한다. 점화 불꽃이 약해졌다면 플러그의

간격을 조정하고 연료 계통에 혼합된 공기를 배출시킨다.

● **라이트가 켜지지 않을 때**  
좌우 2개 모두가 켜지지 않으면 퓨즈가 나간 것이니 예비 퓨즈를 끼워 사용하고, 어느 한쪽만 켜지지 않은 것은 대부분 전구가 끊어졌기 때문이니 로우빔이나 하이빔 하나만 사용하여 서행한다.

●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한쪽 바퀴가 끌린다면**

해당 바퀴의 라이닝 간격을 점검하여 좁을 경우엔 간격을 조정하고, 앵커 핀(anchor pin)이 부식되었다면 앵커 핀에 기름을 공급해야 한다.

● **엔진이 과열되어 오버 히트되고 있다면**

엔진을 계속 회전시켜 냉각 팬과 냉각수 펌프를 작동, 엔진을 냉각시킨후 냉각수의 주입구를 조금씩 열어 증기가 빠져 나가도록 한 후 천천히 냉각수를 주입한다. 이때 냉각수로 사용할 수도물이나 냇물 등의 물을 구할 수 없다면 주스나 맥주라도 이용한다.

● **스위치를 꺼도 엔진이 멈추지 않는다면**

액셀러레이터를 갑자기 밟아서 휘발유를 카뷰레터에서 다량으로 뽑아내면 엔진이 멈춘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꺼지지 않을 때는 다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톱으로 넣고, 핸드 브레이크를 당겨 높은 상태에서 출발과 같은 동작을 해주면 엔진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가 되어 멈추게 된다.

● **퓨즈가 끊어졌을 때는**

예비 퓨즈가 없다면 당장 필요 없는 전기 회로에서 퓨즈를 꺼내어 사용한다. 예를 들면 주간이면 헤드 라이트의 퓨즈를, 날씨가 좋다면 와이퍼의 퓨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담배갑에 들어 있는 은박종이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 **연료가 과도하게 소모될 때**

연료가 누출되는가 확인하여 누출되는 연결 부위를 조여준다. 배기 가스가 검은색이면 에어 클리너가 막혔거나 오염되어 있는 것이므로 에어 클리너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거나 교체한다.

● **클러치의 작동이 불량하여 기어의 치합이 곤란하거나 소음이 난다면**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 크기 때문이므로 1/4"~2"로 유격을 조정한다.

● **와이퍼의 고무관이 고장났을 때**

와이퍼의 고무관이 벗겨졌거나 없어졌다면 고무관이 벗겨진 암에 형질같은 것을 감아서 유리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운전석 앞쪽의 와이퍼 고무관이 벗겨졌다면 오른쪽의 와이퍼를 운전석으로 바꿔달고 운행하면 된다.

●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을 때**

퓨즈가 끊어진 경우 퓨즈를 교체하면 되나 와이퍼 자체가 고장이라면 당장 고치기가 쉽지 않다. 부득이 계속 운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유리창 앞면에 비누를 발라주면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운행할 수 있다. 만약 비누가 없다면 담배꽂이나 물기가 많은 나뭇잎을 비벼서 문질러 주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 **방어운전 요령**

- ① 급제동을 피하고 브레이크를 여러번 나누어 밟아 뒷차에게 주의의를 준다.
- ②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 ③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바로 뒤를 따라 가지 않는다. 전방의 교통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위험하다.

④ 뒤에서 접근하는 차의 움직임에 주시한다. 추월하려 할 때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속도를 줄여준다.

⑤ 상대방에게 한발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사고 방지에 힘쓴다.

⑥ 차량의 진행을 변경시에는 사전에 신호로 후속 차량에게 충분히 알린다.

⑦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사고 등으로 정지시에는 비상등을 점멸시킨다.

⑧ 교차로 통과시 신호를 전적으로 믿지말고 반드시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⑨ 야간에 교차로 통과시에는 전조등을 점멸하여 자신을 알리고 상대 차량의 불빛이 보이면 서행한다.

⑩ 진행중인 다른 차의 옆을 통과시에는 상대방과의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한다.

⑪ 운행중에는 항상 내차를 포함하여 6대(앞차, 앞앞차, 뒤차, 좌측차, 우측차, 내차)를 운전한다는 생각으로 안전 운전해야 한다.

